

충남 금산군의 지역정보 분석

A Regional Information analysis of Geumsan-gun, Chungnam

윤인혁 (Youn, In Hyeok)*

..... 목 차

- I. 서론
 - II. 금산군의 지역정보
 - III. 결론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e the Regional Information of Geumsan-gun, Chung-Nam, Korea.

The study area, the Geumsan-gun, is located in 35°57'~36°17'N, 127°19'~127°39'E.

The Landforms, and Drainage network were analyzed from topographical maps on 1:25,000 & 1:50,000 and field survey. The Climate, Population, Economy, Transportation and etc. were analyzed from regional stat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entripetal forces of unit areas are not powerful because Geumsan-gun located contiguity with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accessibility of Geumsan-gun is good and is available for a site of specialized agriculture area.

Key words: Geographic Information, Geumsan-gun, Landform

*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

I. 서론

국토 공간의 인위적 분할인 행정 단위지역은 그 장소의 독특한 자연적, 인문적 현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유한 질서를 형성한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를 그 단위지역의 지역성(地域性)이라 하고, 다른 지역과 차이로서 비교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력의 향상, 교통의 발달, 여가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간과 재화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접촉공간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용이한 접근과 지역성에 대한 경험 등이 지역 간의 차이를 보다 잘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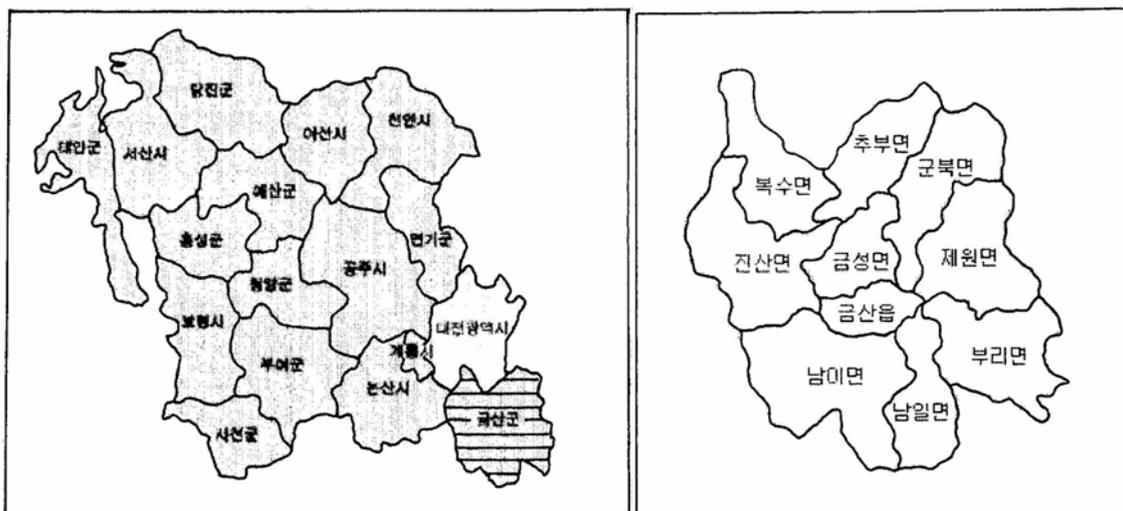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행정 단위지역인 금산군의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정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 단위지역인 충청남도 금산군은 수리적으로 35°57'~36°17'N, 127°19'~127°39'E에 포함되며,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경계부에 자리하고 있다.(1963. 1.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

또한 금강 상류부에 해당하며 금산 분지가 지역의 중심이 된다.

관계적으로는 북으로 대전광역시, 동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남으로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서로는 충청남도 논산시와 접하고 있다.

행정 소 단위지역은 금산읍, 금성면, 추부면,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남이면, 남일면, 진산면, 북수면의 1개읍, 9개면이다. 면적은 576km²이다.



<그림 1> 금산군의 위치와 행정단위

연구방법은 지질도 1:50,000, 지형도 1:25,000 그리고 1:50,000을 이용하여 지도 작업과 야외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단위 지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 금산군의 지역정보

금산군의 기후조건은 바다나 호수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륙성 기후로서 년교차와 일교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일 기상상태의 30년 이상의 평균값인 기후 조건으로 거의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는 동해안의 포항과 서해안의 군산을 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971~2000년의 금산의 월 평년값 최고기온은 포항과 군산의 중간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년 중 가장 더운 8월과 가장 추운 1월과의 차이는 포항 22.8℃, 군산 26.1℃이며 금산이 26.8℃로 가장 크다.

<표 1> 최고기온(℃) - 월평년값

(1971~2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포항	6.5	8.1	12.3	18.5	23.1	25.3	28.8	29.3	25.4	21.2	15.0	9.2	18.6
군산	3.5	4.7	9.4	16.0	21.3	25.3	28.7	29.6	25.5	19.9	12.9	6.5	16.9
금산	3.2	5.6	11.5	19.0	23.6	27.1	29.5	30.0	25.7	20.4	12.9	6.2	17.9

월 평년값 최저기온은 금산이 현저하게 낮고 가장 추운 1월의 값은 그 차이가 매우 커서 해안과 내륙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월 평년값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는 포항 31.7℃, 군산 33.2℃, 금산 38.2℃로 년교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표 2> 최저기온(℃) - 월평년값

(1971~2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포항	-2.4	-1.1	3.0	8.6	13.1	17.5	21.7	22.4	17.7	11.8	5.6	-0.1	9.8
군산	-3.6	-2.5	1.5	7.1	12.5	17.8	22.1	22.5	17.4	10.9	4.6	-1.1	9.1
금산	-8.2	-6.3	-1.6	4.1	9.8	15.8	20.5	20.5	14.1	6.2	-0.1	-5.8	5.8

30년간의 강수량 월 평년값은 바다를 접한 도시보다 금산의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이하며 6, 7, 8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형적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포항 181.7mm 군산 220.4mm에 비해 금산 241.7mm로 가장 크다.

<표 3> 강수량(mm) - 월평년값

(1971~2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포항	40.5	43.4	67.1	79.4	74.6	138.9	182.4	207.9	159.7	52.3	47.9	26.2	1120.3
군산	30.5	32.4	51.1	79.9	86.8	158.7	240.7	250.9	125.6	51.9	58.2	34.6	1201.3
금산	28.2	36.2	52.0	88.1	85.4	181.1	269.9	252.2	131.7	53.5	51.1	29.6	1259.0

금산의 30년간의 일조량 월 평년값은 포항과 군산에 비해 훨씬 많아 서 내륙에 위치한 결과로 판단되며 11월, 12월, 1월의 포항에 비해 적은 것을 제외하면 년 중 두 지역에 비해 일조량은 가장 많다.

<표 4> 일조량(hr) - 월평년값

(1971~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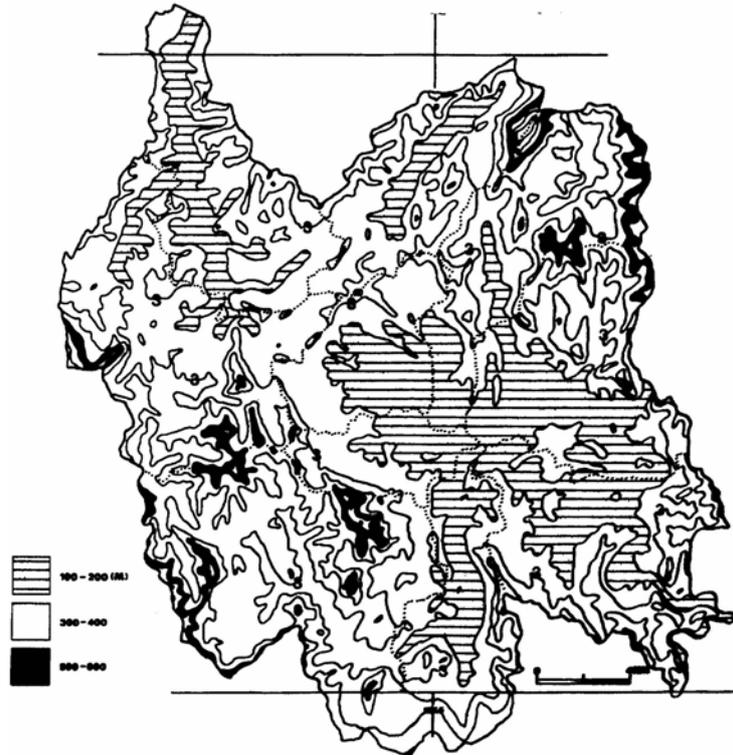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포항	181.5	168.2	185.7	207.5	225.9	165.7	158.8	167.4	157.7	187.7	173.3	185.7	2165.1
군산	151.0	163.2	197.1	211.0	222.4	181.1	157.9	193.5	190.2	199.2	151.0	144.2	2161.8
금산	167.7	176.7	210.3	232.3	250.7	216.6	193.6	206.6	193.9	202.2	157.9	155.2	2363.7

금산군의 지질은 금산분지를 포함한 동부에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며, 서부에는 옥천 Group 이 분포한다. 화강암의 관입 때 접촉 변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porphyry는 금산분지 주변에 그리고 층적층은 봉황천, 유등천, 추풍천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지형은 경사를 지닌 사면(斜面)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지형도와 달리 지표 형태의 윤곽만을 나타냄으로서 산체, 하곡 등의 분포와 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고 소규모의 분지 등 특수한 지형도 확인이 가능한 절봉면도<그림 2>는 곡폭(谷幅) 250m 이하의 곡을 메우는 매곡법(埋谷法)으로 작성하였다.

등고선 간격은 100m로 하고 100-200m, 300-400m, 500-600m를 구분하여 표시 하였다.



<그림 2> 금산군의 절봉면도

절봉면도에서

- contour 500m 이상 지역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을 포함하는 북동지역과 대둔산을 포함하는 남서부.
- contour 200~500m 지역 : 전체적으로 분포가 가장 넓은 지역.
- contour 100~200m 지역 : 금산분지와 유등천, 추풍천에 의해 하곡이 발달한 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금산군은 임야가 71%, 전답이 19%로서 지형 특성상 임야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금이 용이한 특용작물 재배로 지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삼, 갯잎 그리고 약초 등의 재배가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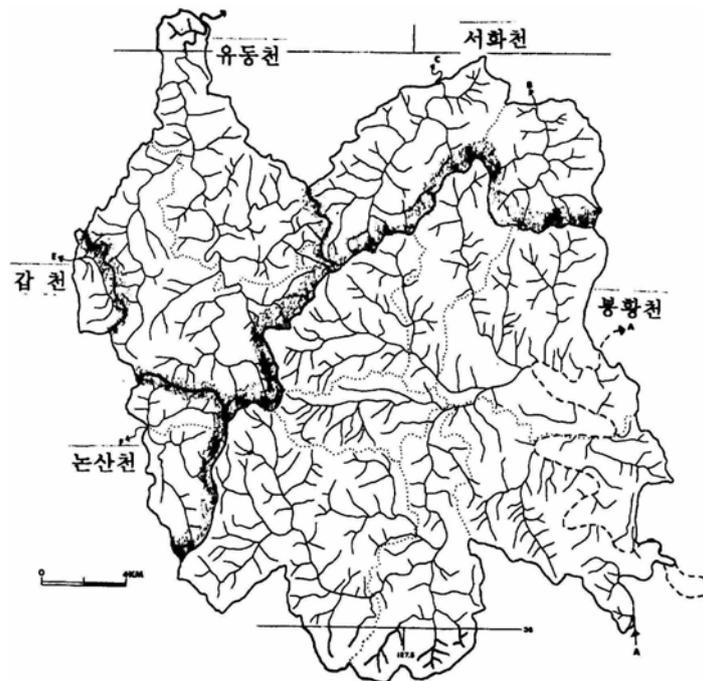
하천은 취락의 입지와 교통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역분지를 형성하여 지역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로(流路)는 하곡의 1차적 형태와 방향을 나타낸다.

금산군의 하계는 <그림 3> 4개의 소 유역으로 나누어지는데,

- 1) 금산읍을 지나는 봉황천은 동쪽으로 흘러 금강에 유입
- 2) 추부면을 흐르는 추풍천은 옥천을 지나 대청호에 유입
- 3) 복수면을 지나는 유등천은 북쪽으로 흘러 대전광역시를 통과
- 4) 남이면을 흐르는 논산천은 서쪽으로 흘러 논산시를 지나 금강에 유입한다.

이렇게 넓지 않은 동일 행정단위지역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역분지와 유로(流路)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과 주민 활동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접근성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지형적 단위지역과 행정 단위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지역의 구심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인구의 이동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나 경제력이 강한 지역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금산군의 하계망도

금산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금산분지는 36°04'~ 36°11'N, 127°25'~127°32'E에 위치하며 금산군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금산군 금산읍과 금성면의 전부와 동측으로 군북면의 일부를 포함하며, 금강의 상류부로 유입하는 지류인 봉황천 유역에 해당한다.

지형적 경계는 남쪽에 위치한 진악산(732.3m)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수리넘어재-보티재-열두봉재-월봉산(543m)-월봉재-소리니재-금성산(438.6m)-미룩재-삼재-성재(429.1m)-닭이봉(510m)-일월이재-두루봉(211.7m)으로 이어지는 산능으로 경계를 이룬다.

금산분지의 지질은 (1:50,000 지질도 금산 도폭과 무주 도폭) 관입에 의한 주라기 흑운모 화강암을 주된 기반암으로 하고, 동부와 서부의 경계 산지를 따라 백악기의 석영 반암류가 좁고

길게 분포하며, 층적층은 하천을 따라 발달한다.

금산분지의 형성은 화강암의 관입 후 기존의 암석이 제거되고 2차적인 지각변동 없이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와 차별침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지의 내부는 화강암 지역 특유의 부드러운 사면의 구릉지와 함께 완만한 기복의 평탄지가 대부분이다. 분지 내에서 발견되는 절개된 신선한 단면에서 상당한 깊이의 심층 풍화대(saprolite)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분지 내 대규모 취락이 입지하는 금산읍은 침식이 진행 중인 소규모 구릉지에 둘러 싸여 있으며 하천은 읍내를 흐르는 금산천과 금성면을 흐르는 기사천이 금강의 지류인 봉황천에 합류한다.

행정 단위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인문적지표가 되는 인구는 지역성을 잘 반영한다.

금산군의 면적은 충청남도의 6.7% 이지만 인구규모는 3%에 불과하다. 인구밀도 또한 도내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룡시(2003년 9월 19일 계룡출장소에서 계룡시로 승격)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인구수와 인구 밀도가 청양군 다음으로 가장 낮다.

2005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총이동 전입 325,444명, 전출 320,445명으로 순이동 4,999명, 이동율 0.25 인데 비해 금산군은 총이동 전입 6,505, 전출 8,022명으로 순이동 -1,517명, 이동율은 -2.57으로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크다.

이것은 취업의 기회, 교육 여건, 문화 및 의료 선택 등의 필요조건과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로의 경제적 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금산군이 변화가 큰 것은 대전광역시와 접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이동에 따른 시간거리가 짧고 비용거리가 저렴하다. 따라서 대도시와의 접촉 빈도가 높고, 도시 생활의 선호도 또한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 2005

시·군	인구수	인구밀도	시·군	인구수	인구밀도
천안시	518,818	815	홍성군	91,432	206
아산시	208,448	384	연기군	85,395	236
서산시	151,283	204	부여군	81,850	131
논산시	135,210	244	서천군	64,676	181
공주시	130,595	139	태안군	64,075	127
보령시	108,639	191	금산군	59,014	102
계룡시	34,451	568	청양군	35,144	73
당진군	122,016	184			
예산군	91,449	168	충청남도	1,982,495	231

인구밀도 또한 충청남도 231명/km², 금산군 102/km²으로 충남의 평균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것은 충남의 다른 행정 단위지역에 비해 고도가 비교적 높은 산지지역이 넓고, 임야의 비율도 높아서 지형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산군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2005년의 20년 동안 년 평균 1,800여명이 감소하는 특이한 인구현상을 보이며 총 36,000여명이나 감소하였다.

<표 6> 금산군의 인구추이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인구수	104,001	95,206	84,078	70,831	64,785	59,014
인구밀도	181	166	147	123	112	102

금산군의 읍면별 인구는 금산읍을 제외하면 대전광역시와 행정단위의 경계를 이루는 추부면이 대학교가 위치하며 중소기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산읍에 접하는 금성면이며 그 외 7개면은 금산군 인구밀도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

<표 7> 금산군의 읍면별 인구 - 2005

읍면	금산읍	추부면	금성면	복수면	진산면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군북면	남이면	전체
인구수	24013	7368	4462	3994	3839	3593	3473	3055	2896	2321	59014
인구밀도	1114	150	128	71	48	56	52	65	50	24	102

금산군의 산업구조는 경지나 임야 면적으로 볼 때 농업과 특화작물인 인삼 과 깻잎, 약초의 생산 등 1차 산업 비중이 큰 것으로나 식품 가공 등 제조업이나 인삼과 약초의 도, 소매 종사자의 비율도 높아 1, 2, 3차 산업이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금산군의 사업체수는 도·소매업 36.0%, 숙박, 음식 17.4%, 제조업 15.3%로 인삼, 약재 관련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인 숙박, 요식업이 그 다음이며, 비교적 저렴한 지가와 양호한 접근성 등 유리한 입지 조건에 따른 제조업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도로는 지역 간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산군과 연결되는 도로는 경남 통영↔경기 하남을 잇는 35호 중부고속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추부 IC와 금산 IC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그리고 국도는 13번 완도-금산, 17번 여수-금산-용인, 37번 거창-금산-파주, 55번 해남-금산, 68번 서천-금산-경주를 잇는 도로가 연결된다.

자연경관은 군북면의 서대산 (충남 제1고도 903.7m), 진산면의 대둔산(도립공원), 금산읍의

진악산 (금산분지의 주산), 추부면의 만인산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경계) 등 비교적 고도가 높은 산체들이 산재하여 금산(錦山)을 이루고, 물 맑은 부리면의 적벽강 (무주에서 금산으로 이어지는 금강 상류)을 지나 금강의 본류가 흐른다. 이렇게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이 실제적인 관광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Ⅲ. 결론

첫째, 금산군의 기후는 기온의 년 교차가 크고 강수량은 하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조량은 비교적 많다.

둘째, 금산군의 지형은 금산분지를 중심으로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계는 유로를 달리 하는 4개의 소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셋째, 금산군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고, 인구이동에 의한 지속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양호한 접근성을 이용한 특화작물의 생산과 유통 및 수려한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지역성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금산군은 지형적 단위지역과 행정 단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심력이 약하며, 또한 도시 세력이 큰 권역 중심도시가 인접해 있어 인구이동(유입 < 유출)의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 외,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2006.

윤인혁, “대전·충남지역의 기복량과 기반암의 관계”, 『경북대학교 지리학논구』, 제14호, 1994.

윤인혁, “대전광역시의 지리정보(I)”, 『중부대학교 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윤인혁, “공주시와 부여군의 지형특성”, 『중부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99.

윤인혁, “옥천분지와 진천분지의 지형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4호, 2001, pp.93-104.

이케다 히로시, 『화강암지형의 세계』, 권동희 역, 한울아카데미, 2002.

윤인혁, “충남 금산군과 청양군의 지역 차이”,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9권 제3호, 2005.